

2022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위원정수	9인	재적위원수	9인
------	----	-------	----

1. 일 시 : 2022.1.24.(월) 11시
2. 장 소 : 대구교육관 4층 407호
3. 위원 출석현황

구분	참석	불참석	참석위원	불참위원
위원	7명	2명	이의철, 이명균, 석정웅, 김관식, 조경모, 김유라, 문민호	이혁화, 이희경

4. 안건

- 제1호의 안 :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관한 건
- 제2호의 안 : 교비회계 잉여금 처리원칙 심의
- 제3호의 안 : 2021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제4호의 안 : 2021, 2022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안) 심의
- 제5호의 안 : 2022학년도 수업료 책정(안) 심의
- 제6호의 안 : 2022회계연도 본 예산(안)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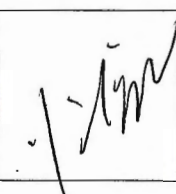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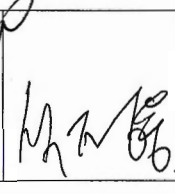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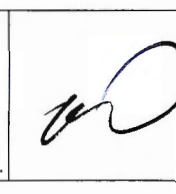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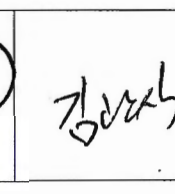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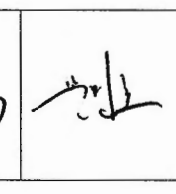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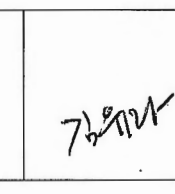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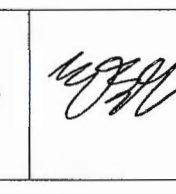
5. 회의내용

가. 개회

- ‘간사’가 재적위원 9명 중 7명의 참석으로 성원이 됨을 보고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1년으로 금년도 위원들이 새로이 구성되었기에 위원장 선출을 위해 임시위원장을 호선해 주길 요청하다.
- ‘석정웅’위원이 이의철 위원을 임시위원장으로 추천하자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의철 위원을 임시위원장으로 호선하다.

나. 안건 심의

- 제1호의 안 :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관한 건
 - ‘이의철’임시위원장이 제1호의 안을 상정한다고 하고 위원들에게 위원장을 추천해 달라고 하다.
 - ‘석정웅’위원이 이의철 위원을 추천한다는 의견에, ‘이명균’위원의 동의와 ‘김관식’위원의 재청이 있어 ‘임시위원장’이 참석위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 제2호의 안 : 교비회계 잉여금 처리원칙 심의
 - 제안설명
 - ‘위원장’이 제2호의 안을 상정하면서 간사에게 부연 설명을 요청하다.
 - ‘간사’가 잉여금의 개념 및 잉여금 활용을 중심으로 잉여금 처리 원칙에 대해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다.
 - 토론 및 토론 종결
 - ‘위원장’이 잉여금이 얼마나 될지 예상금액을 질문하다.
 - ‘간사’가 24억에서 26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하다.

서명							
----	---	---	---	---	--	---	---

- ‘김관식’위원이 대학평의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잉여금 처리 원칙은 대학이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매년 하는 것이고 작년과 내용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기에 다른 위원들의 이의가 있지 않다면 원안대로 하는 것에 대해 동의안을 낸다고 하다.
- ‘위원장’이 ‘김관식’위원의 동의안에 ‘석정웅’위원의 재청이 있어 전체위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다.

□ 제3호의 안 : 2021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위원장’이 제3호의 안을 상정하면서 간사에게 부연 설명을 요청하다.
- ‘간사’가 2021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입이 감소하였다고 하며 2학기 재학생의 인원이 예상보다 적었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각종 교내외 행사 및 사업이 취소되었으며, 시간강의로 단가 감액 등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예산상 수입, 지출 모두 줄었다고 하면서 예산상 수입, 지출을 설명하다. 이번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수입총계가 13,828,824천원이고 이중에서 등록금회계가 9,491,752천원, 비등록금회계가 4,337,072천원이고, 지출은 수입에 맞추어 예산을 책정하였다고 하며 1차 추가경정 예산 대비 변동금액에 대해서는 관을 중심으로 변동사유에 대해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다.

- 토론 및 토론 종결

- ‘위원장’이 재학인원 감소에 따라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지출을 수입에 맞추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하다.
- ‘김관식’위원이 원안에 대한 동의안을 낸다고 하다.
- ‘위원장’이 ‘김관식’위원의 동의안에 ‘이명균’위원의 재청이 있어 전체위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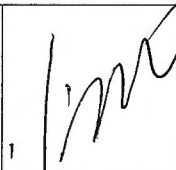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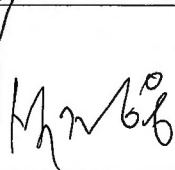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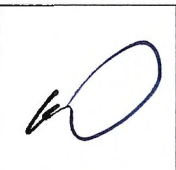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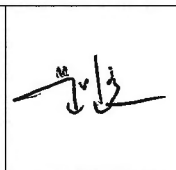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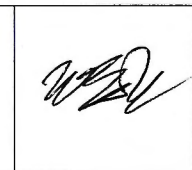
□ 제4호의 안 : 2021, 2022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안) 심의

- 제안설명

- ‘위원장’이 제4호의 안을 상정하면서 간사에게 부연 설명을 요청하다.
- ‘간사’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사학연금 법인 부담금을 부담하게 될 때 부담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하며, 2021회계연도 사학연금 부담금에서 부담금 기준액은 179,420천원이고 이 중 법인부담이 20,000천원이며, 2022회계연도 사학연금 부담금에서 부담금 기준액은 116,000천원이고 이 중 법인부담은 20,000천원이라고 하며 하반기 법인부담금액이 변동될 때 대학부담금의 변동도 함께 발생한다고 설명하다.

- 토론 및 토론 종결

- ‘위원장’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00%를 법인에서 다 내는 대학은 얼마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하다.
- ‘간사’가 대학마다 법인재정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법인부담금 전액을 법인에서 부담하는 대학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대학의 법인의 경우에도 예산상 자금이 많지 않은 가운데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를 대비하여 대학에서 요청한 것을 받아들여 2021, 2022회계연도 법인부담금을 법인예산의 10%이상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다. 그리고 매년 교육부에서 법인재정을 확인한 후 승인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공문이 올 것이라고 하다.
- ‘김관식’위원이 원안대로 하는 것에 동의안을 낸다고 하다.

서				김관식		김관식	
---	---	---	---	-----	--	-----	---

- '위원장'이 '김관식'위원의 동의안에 '석정웅'위원의 재청이 있어 전체위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다.

□ 제5호의 안 : 2022학년도 수업료 책정(안) 심의

- 제안설명

- '위원장'이 제5호의 안을 상정하면서 간사에게 부연 설명을 요청하다.
- '간사'가 1안은 작년과 같은 동결(안)이고 2안은 수업료 인상(안)으로 우리 대학은 교육부의 입학금 단계적 감축 계획에 따라 입학금을 2018학년도부터 감축하여 2021학년도를 끝으로 입학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것이었으나, 교육부에서 입학금 실비용을 등록금에 산입하여 등록금을 책정한 경우 해당 금액을 국가장학금 II 유형으로 지원하겠다는 안내가 있어 수업료 인상(안)을 상정하게 되었다고 하다. 대상 학생은 2022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이며, 금액은 130,000원이며, 해당 금액은 국가장학금 II 유형으로 선감면이 되기에 학생들의 실납부금액은 작년과 변동이 없다고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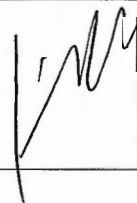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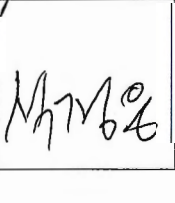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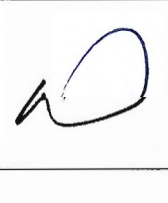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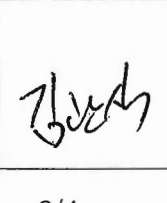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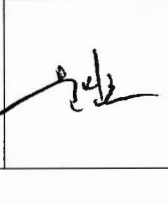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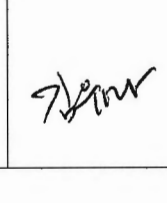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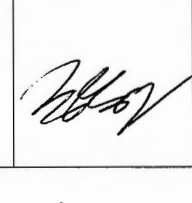
- 토론 및 토론 종결

- '위원장'이 1안은 동결이고 2안은 2022학년도 신·편입생만 수업료를 인상하는 안인데 먼저 1안에 대한 동의안을 받겠다고 하다.
- '위원장'이 1안에 동의하시는 분이 없으니 2안에 대한 동의안을 받겠다고 하다.
- '김관식'위원이 지난주 목요일에 한국장학재단에서 공지가 나왔는데 원 입학금의 20%를 등록금에 반영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우리 대학의 등록금고지서상으로는 수업료에 반영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하다. 그러나, 고지서상에서도 선감면을 하기에 학생들의 실납부금액의 변동이 없고, 대학에서는 지원금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만큼 신입생과 편입생들의 수업료를 인상하는 2안에 대해 동의한다고 하다.
- '위원장'이 두 개안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는 둘 다 동결이나 다름없다고 하다.
- '문민호'위원이 학생들의 실납입금액의 변동이 없는 것이 맞는지 질문하다.
- '간사'가 앞서 설명했듯이 등록금고지서가 발급될 때 인상된 수업료가 책정되어 있지만 같은 금액으로 선감면 금액이 표시되어 있기에 실제 납입금액은 작년과 동일하다고 하다.
- '이명균'위원이 금학년도 신·편입생만 해당되는 것으로 학생들의 실납입금액에 변동이 없고 학교에 도움이 되는만큼 2안에 동의한다고 하다.
- '위원장'이 '김관식'위원의 동의안에 '이명균'위원의 재청이 있어 전체위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다.

□ 제6호의 안 : 2022회계연도 본 예산(안) 심의

- 제안설명

- '위원장'이 제6호의 안을 상정하면서 간사에게 부연 설명을 요청하다.
- '간사'가 2022회계연도 본 예산(안)의 수입이 신입생 및 재학생 인원의 감소로 작년대비 감소하여 등록금수입만으로는 지출예산을 책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추경을 할 예정으로 일부 지출예산을 삭감하였다고 하다. 2022회계연도 수입총계가 9,024,002천원이고 이중에서 등록금회계가 4,987,152천원, 비등록금회계가 4,036,850천원이라고 하며, 지출은 감소한 수입에 맞추어 예산을 책정하였다고 하면서 예산내역에 대해 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다.

서 명							
--------	---	---	---	---	--	---	---

- 토론 및 토론 종결

- '위원장'이 2022회계연도 예산(안)은 작년보다도 더 안좋아졌는데 그 이유로는 신·재학생 인원이 줄어든게 가장 크다면서 수입이 줄어든만큼 행정적으로도 지출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다.
- '위원장'이 예산상 재학생 인원을 몇 명으로 예상했는지 질문하다.
- '간사'가 연평균 590명으로 잡았다고 하다.
- '위원장'이 금학년도에 졸업학생 수만큼 신입생이 입학 안하니 재학생 인원이 계속 줄어들면서 이런 예산이 나온거 같다고 하다.
- '이명균'위원이 원안에 대해 동의한다고 하다.
-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이명균'위원의 동의안에 '문민호'위원의 재청이 있어 참석위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6. 의결사항

- 제1호의 안 : 이의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다.
- 제2호의 안 : 원안대로 의결하다.
- 제3호의 안 : 원안대로 의결하다.
- 제4호의 안 : 원안대로 의결하다.
- 제5호의 안 : 원안대로 의결하다.
- 제6호의 안 : 원안대로 의결하다.

7. 폐회선언

상기 회무를 마치고 위원들의 폐회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어 위원장이 가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2022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본 회의록의 의사진행사항 및 그 의사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날인하다.]

2022. 01. 24.

참석인원	위원장	이 의 철 (인)	위원	조 경 모
	위원	석 정 웅 (인)	위원	김 유 라 (인)
	위원	이 명 균 (인)	위원	문 민 호 (인)
	위원	김 관 식 (인)		

작성자 김 광 진 (인)